

1. 소급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보험계약자가 소급기간 내에 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고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보험계약의 효력은 발생한다.
- ② 소급보험의 경우 보험료 선급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③ 소급보험은 보험계약기간이 보험기간보다 장기이다.
- ④ 소급보험은 보험계약의 성립 이전의 일정한 시기를 보험기간의 시기로 한다.

2. 보험자의 보험약관에 대한 설명의무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가. 상해보험에서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로 인한 손해를 보장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면책규정
- 나. 업무용자동차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자동차의 양도에 관한 통지의무 규정
- 다. 상해보험에서 기왕장해에 대한 감액규정
- 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따라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는 적재물배상책임보험약관에서 차량이 육상운송과정인 아닌 선박으로 해상구간을 이동하는 경우의 사고는 보험사고에서 제외된다는 규정
- 마. 주택보증보험계약에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이 취소된 경우 보증계약을 취소하고 잔여 보증기간에 대한 보증료를 환불한다는 규정
- 바. 연금보험에서 연금액의 변동가능성에 관한 규정

- ① 가, 나, 다
- ② 가, 다, 바
- ③ 나, 마, 바
- ④ 다, 마, 바

3. 보험계약자 등의 고지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
- ② 현저한 부주의로 중요한 사항임을 알지 못한 것에 대하여도 고지의무위반이 된다.
- ③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해지하는 경우 인보험자는 보험수익자를 위하여 적립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④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보험자가 보험수익자에게 해지의 통지를 한 경우 그 효력이 있다.

4. 보험료의 감액 또는 증액 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보험기간 중 특별하게 예기한 위험이 소멸한 경우라도 보험계약자는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
- ② 손해보험계약에서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거나 보험가액이 보험기간 중에 현저하게 감소된 경우 보험계약자만이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보험기간 중에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증가된 경우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하거나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 타인은 보험계약자의 동의 없이는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②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의 경우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이를 보험자에게 고지하지 않아도 된다.
- ③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보험 수익자는 그 권리를 포기하지 아니하는 한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 ④ 타인을 위한 인보험의 경우 그 타인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한다.

6. 계약 성립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계약의 청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상법 제638조의2의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승낙기간의 경과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자의 승낙이 의제되지 않는다.
- ② 약관상 청약철회규정을 둔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하더라도 보험자는 낙부통지의무를 부담한다.
- ③ 신체검사가 필요한 인보험계약의 경우에는 신체검사를 받은 날부터 통지기간이 기산된다.
- ④ 승낙기간의 경과로 보험자의 승낙이 의제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자와 보험자 간에 상시 거래관계를 요건으로 한다.

7.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상해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오토바이 운행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은 상법상 위험변경·증가시의 통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명시한 약관조항은 법령에 정해진 것을 되풀이한 것에 불과하므로 보험자는 해당 약관 조항에 대하여 설명할 의무가 없다.
- ② 장해분류표에서 “심한 추간판탈출증”을 “추간판을 2마디 이상 수술하고 ... 하지의 현저한 마비 또는 대소변의 장애가 있는 경우”라고 정의한 경우 피보험자가 추간판을 2마디 이상 수술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심한 추간판탈출증”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잘못이다.
- ③ 보험계약자가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으로 체결한 다수 보험계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 경우 보험자의 지급보험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다.
- ④ 모텔 투숙객의 방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객실의 지배는 투숙객이 아닌 숙박업자에게 있으므로 발생원인이 불명한 화재로 인하여 객실에 발생한 손해는 숙박업자에게 귀속되고, 숙박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투숙객의 배상책임보험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8.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보험자가 소형트럭 차량 운행 중 비가 내리자 시동을 켜 채 운전석 지붕에 올라가 적재함에 방수비닐을 덮다가 미끄러져 추락하는 사고로 후유장애를 입은 경우 피보험자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자기신체사고로 보아야 한다.
- ② 원인불명의 화재사고에서, 화재로 인한 임차인의 임차 목적물 부분의 손해에 대하여는 임차인이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 ③ 원인불명의 화재사고에서, 화재가 임차목적물에서 발생하여 임차하지 않은 목적물까지 타버린 경우에 임차하지 않은 부분의 손해에 대하여는 임대인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 ④ 보험자는 이른바 임의비급여 진료를 받은 피보험자들에게 지급한 보험금에 대하여 해당 진료비를 받은 병원을 상대로 채권자대위소송을 통해 부당이득반환을 받을 수 있다.

9. 복수의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이 중복보험에 해당하는 경우의 구상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중복보험의 합계금의 총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하나의 사고로 인한 손해액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 한도에서 ‘부진정’연대책임을 지고, 각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에 따른 보상책임을 진다.
- ② 중복보험자 가운데 하나가 단독으로 피보험자에게 보험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된 보험금을 지급하였다면 다른 보험자를 상대로 각자의 보험금액비율에 따른 분담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단독으로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당사자 간에 보험자대위에 동의하는 약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 ④ 단독으로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보험자대위청구권과 중복보험분담금청구권이 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라도 분담금청구권을 먼저 행사하여야 한다.

10. 상법상 피보험이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판례에 의함)

- ① 보험계약의 유효를 전제로 보험료를 받은 보험자가, 보험사고 발생 후에 비로소 피보험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의 무효를 주장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위반은 아니다.
- ② 창고보험처럼 보험기간 중에 물건의 수시 교체가 이루어 지는 총괄보험의 경우는 사고 발생 시에도 피보험이익의 객체를 확정할 수 없지만, 화재나 도난에 대한 대비책으로 적절한 보험제도이다.
- ③ 피보험이익은 보험계약 성립의 절대적 요건이므로 피보험이익이 없어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라면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에게 고의가 있어도 보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 ④ 조건부 이익은 보험계약 체결 시에 확정할 수 있어야 피보험이익으로 인정된다는 점에서 장래의 이익과 다르다.

11. 상법상 일부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 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할 책임을 진다.
- ② 분손의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는 때에는 손해액에 부보 비율을 곱하여 산출되는 금액을 지급한다.
- ③ 보험계약체결 이후 보험의 목적의 물가 상승으로 보험 금액이 보험가액에 미달하는 자연적 일부보험의 경우는 일부보험으로 다룰 수 없다는 견해가 있다.
- ④ 비율보험에는 일부보험에 관한 상법 규정이 준용된다.

12. 잔존물대위와 보험위부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잔존물대위는 보험의 목적에 현실전손이 발생하여야 하며 손해에 대하여 전부 보상한 보험자가 법률상 당연히 대위권을 취득한다.
- ② 보험위부는 피보험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며 위부권은 형성권이다.
- ③ 잔존물대위와 달리 보험위부는 해상보험에서 인정되며 두 가지 모두 인보험에 적용될 수 없다.
- ④ 보험자가 위부를 승인하지 아니한 때에도 피보험자는 위부의 원인을 증명하지 않고 보험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13. 해상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선박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계약에서 정한 항로를 이탈한 경우라도 손해 발생 전에 원항로로 돌아온 경우에는 보험자는 그 후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 ② 적하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고로 인하여 선박을 변경한 때에는 그 변경 후의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③ 항해 도중에 불가항력으로 보험의 목적인 적하를 매각한 때에는 매수인이 그 대금을 지급하는 한 보험자는 따로 보상할 책임이 없다.
- ④ 보험자는 보험의 목적의 안전이나 보존을 위하여 지급할 특별비용이 보험금액의 한도를 넘더라도 보상할 책임이 있다.

14. 책임보험계약상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직접청구권을 인정한 상법 제724조 제2항은 강행규정이므로 직접청구권을 부인하거나 그 행사를 어렵게 하는 약관조항은 무효이다.
- ② 피해자는 피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전제로 직접청구권을 가지므로 직접청구권은 부종성이 있으며, 보험자는 피해자에게 책임관계상 항변을 원용할 수 있다.
- ③ 피해자가 피보험자로부터 배상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보험자가 보험금을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 그 지급 자체는 유효하고 보험자는 피해자에게 보험금 지급 사실을 들어 항변할 수 있다.
- ④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하고 총 피해액의 합계가 책임 보험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다수의 직접청구권자들 사이에는 권리의 우선순위가 없으므로 피해자 각자가 자기 권리의 전부를 주장할 수 있고 보험자는 누구에게라도 유효한 변제를 할 수 있다.

15. 동일인이 다수의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사실에 대한 고지 또는 통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보험자가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 여부를 청약서에 기재하여 질문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 여부는 고지의무의 대상이 아니다.
- ②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다른 생명보험계약을 다수 가입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위험변경증가에 대한 통지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③ 보험계약 체결 후 동일한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이를 통지하도록 하고, 이 통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보험자는 그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약정은 유효하다.
- ④ 보험자가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 여부에 관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려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를 알고 있는 것 외에 그것이 고지를 요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여 고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16. 甲은 남편 乙을 피보험자로, 아들 丙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보험자와 체결하였다. 이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른 약정이나 가정은 전제하지 않고, 상법 제733조만 적용함)

- ① 甲이 丙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하고 변경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망하면 丙의 보험수익자로서의 권리가 확정된다.
- ② 丙이 보험 존속 중에 사망하고, 甲이 재지정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망하면 丙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된다.
- ③ 丙이 보험 존속 중에 사망한 때에는 丙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확정된다.
- ④ 丙이 보험존속 중에 사망하고 甲이 재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乙이 사망한 경우에는 丙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된다.

17. 甲이 남편 乙을 피보험자로,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사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과정에서 보험설계사는 약관상의 피보험자의 서면동의조항(상법 제731조)에 관하여 설명하지 않은 채 乙의 동의 없이 서명을 위조하였다. 이 보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계약 체결 시 그 乙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상법 규정은 강행법규로서 이 규정을 위반한 보험계약은 무효이다.
- ② 서면동의조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가 스스로 무효를 주장한다고 해도 이러한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 ③ 甲이 모집과정에서 보험설계사의 주의의무 해태 내지 불법행위로 인하여, 보험사고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다면,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에게 그 보험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④ 乙이 보험계약 성립 이후에 이 계약을 추인한다면 그 보험계약이 유효하고 甲은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18. 생명보험자의 면책사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사망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면책사유로 규정한 경우, 그 자살은 사망자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행위를 의미한다.
- ② 생명보험에서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면책되지 않는다.
- ③ 보험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복수의 원인이 존재하는 경우, 그 중 하나가 피보험자 등의 고의행위임을 주장하여 보험자가 면책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공동원인의 하나이었다는 점을 증명하면 족하다.
- ④ 생명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보험자가 보험금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19. 단체생명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보험자가 보험사고 이외의 사고로 사망하거나 퇴직 등으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자격을 상실하면 그에 대한 단체보험계약에 의한 보호는 종료된다.
- ② 단체보험계약은 단체 구성원이 보험수익자가 되는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어야 한다.
- ③ 단체규약으로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한다는 명시적인 정함이 없는 경우,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없이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하였다면 그 지정은 무효이다.
- ④ 단체보험계약자인 회사의 직원이 퇴사 후 사망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회사가 그 직원에 대한 보험료를 퇴직 후 계속 납입하였더라도 퇴사와 동시에 단체보험의 피보험자의 지위가 종료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0. 보험계약과 관련된 통지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안 때에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 ② 보험사고 통지의무를 해태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
- ③ 책임보험에서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배상청구를 받은 때에도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하고,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경우에도 보험자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 ④ 책임보험에서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변제, 승인, 화해 또는 재판으로 인하여 채무가 확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21. 보험업법상 다음 보기의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전문보험계약자 중 ()가(이) 일반보험계약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동의하여야 하며, 보험회사가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계약자는 일반보험계약자로 본다.

- ① 국가
- ② 지방자치단체
- ③ 한국은행
- ④ 신용보증기금

22. 보험업법상 다음의 보기 중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가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종류를 모두 고른 것은?

가. 생명보험계약
나. 연금보험계약
다. 화재보험계약
라. 자동차보험계약
마. 책임보험계약
바. 동물보험계약
사. 질병보험계약
아. 간병보험계약

- ① 가, 다, 라, 아
- ② 가, 마, 바, 사
- ③ 나, 다, 마, 바
- ④ 나, 라, 사, 아

23. 보험업법상 보험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금융업무로서 해당 법령에서 보험회사가 할 수 있도록 한 업무를 겸영할 수 있다. 이에 해당하는 업무가 아닌 것은?

- ①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자산의 관리업무
- ②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채권유동화자산의 관리업무
- ③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유동화자산의 관리업무
- ④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신용정보관리업

24. 보험업법상 다음의 보기 중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방법으로 허용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가.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한 비업무용 부동산의 소유
나. 유가증권에 대한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자금의 대출
다. 간접적으로 해당 보험회사의 주식을 사도록 하기 위한 대출
라. 간접적인 정치자금의 대출
마. 해당 보험회사의 임직원에 대한 보험약관에 따른 대출

- ① 가, 다
② 가, 마
③ 나, 라
④ 나, 다, 마

25. 보험업법상 보험회사의 재무제표 등의 제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보험회사는 매년 12월 31일에 그 장부를 폐쇄하여야 한다.
② 보험회사는 장부를 폐쇄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재무제표 및 사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험회사는 매월의 업무 내용을 적은 보고서를 다음 달 말일까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보험회사는 재무제표 또는 월간업무보고서 등 제출서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26. 보험업법상 보험회사인 주식회사의 자본감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자본감소를 결의한 경우에는 그 결의를 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결의의 요지와 재무상태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자본감소의 결의를 할 때 주식 금액 또는 주식 수의 감소에 따른 자본금의 실질적 감소를 하려면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자본감소의 결의에 따른 공고에는, 보험계약자로서 자본감소에 이의가 있는 자는 1개월 이상의 이의신청 기간과 이 기간 동안에 이의를 제출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④ 자본감소는 이의를 제기한 보험계약자나 그 밖에 보험계약으로 발생한 권리를 가진 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27. 보험업법상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금융위원회는 외국보험회사의 본점이 합병, 영업양도 등으로 소멸하는 경우 그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에 대하여 청문을 거쳐 보험업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의 대표자는 퇴임한 후에도 후임 대표자의 이름 및 주소에 관하여 상법에 따른 등기가 있을 때까지는 계속하여 대표자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③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은 그 외국보험회사의 본점이 휴업하거나 영업중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④ 보험업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의 본점이 보험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잔무처리를 할 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28. 보험업법상 보험설계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보험설계사는 생명보험설계사, 손해보험설계사(간단 손해보험설계사를 포함), 제3보험설계사로 구분한다.
② 보험회사·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는 보험설계사가 되려는 자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보험설계사가 교차모집을 하려는 경우에는 교차모집을 하려는 보험회사의 명칭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④ 보험회사는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최초로 유효한 등록을 한 날부터 2년이 지날 때마다 2년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보험업법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교육을 해야 한다.

29. 보험업법상 다음 보기의 ()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기존 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로부터 ()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한 날로부터 () 이내에 기존보험계약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 소멸 후 새로운 보험계약 체결 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자필로 서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따른 행위임이 명백히 증명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① 1개월 - 1개월
② 1개월 - 3개월
③ 3개월 - 3개월
④ 6개월 - 6개월

30. 보험업법상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이 준수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 ①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제공·중개를 조건으로 보험가입을 강요하지 아니할 것
- ② 판매·제공·중개하는 재화 또는 용역과 별도로 소비자가 보험계약을 체결 또는 취소하거나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할 것
- ③ 재화·용역을 구매하면서 동시에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와 보험계약만 체결하는 경우 간에 보험료, 보험금의 지급조건 및 보험금의 지급규모 등에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 ④ 보험계약자에게 피보험이익이 없으면서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전부를 부담하는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전에 서면, 문자메세지, 전자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보험업법에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안내자료를 피보험자가 되려는 자에게 제공할 것

31. 보험업법상 다음의 보기 중 보험상품공시위원회의 위원 가운데 보험협회의 장의 위촉이 필요하지 않은 당연직 위원은 모두 몇 명인가?

가. 금융감독원 상품담당 부서장
나. 보험협회의 상품담당 임원
다.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상품담당 임원
라. 보험회사의 상품담당 임원
마. 보험회사의 선임계리사
바.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 ① 2명
- ② 3명
- ③ 4명
- ④ 5명

32. 보험업법상 보험회사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제재로서 다음 보기의 () 에 들어가는 조치로 옳은 것은?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하여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해치거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 ①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 ② 6개월 이내의 영업의 일부정지
- ③ 보험회사에 대한 주의·경고 또는 그 임직원에게 대한 주의·경고·문책의 요구
- ④ 임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의 해임권고·직무정지

33. 보험업법상 보험요율 산출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보험요율 산출기관은 보험회사가 적용할 수 있는 순보험요율을 산출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② 보험회사는 이 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기초서류를 보험요율 산출기관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 ③ 보험요율 산출기관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④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회사로부터 수수료를 받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34. 보험업법상 선임계리사의 임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선임계리사를 해임하려는 경우에는 선임계리사의 해임 전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에 신고해야 하지만,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보험회사는 선임계리사가 업무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업무정지 기간 중 그 업무를 대행할 사람을 선임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③ 금융위원회는 선임계리사가 그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면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해임하게 할 수 있다.
- ④ 보험회사가 선임계리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해임 요구가 있는 때에도, 그 선임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그 선임계리사를 해임할 수 없다.

35. 보험업법상 선임계리사는 수행할 수 없고, 보험계리사 및 보험계리업자만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 ① 기초서류 내용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 ② 잉여금의 배분·처리 및 보험계약자 배당금의 배분에 관한 사항
- ③ 지급여력비율 계산 중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과 관련된 사항
- ④ 상품 공시자료 중 기초서류와 관련된 사항

36. 다음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사전지정운용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가. “사전지정운용제도”란 가입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 사전에 지정한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 나.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사전지정운용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 다.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사전지정 운용방법을 사용자에게 우편 발송, 서면 교부, 정보통신망에 의한 전송, 그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당사자가 합의한 방법에 따라 제시하여야 한다.
- 라.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사전지정 운용방법에 적립금의 안정적 수익을 보장하는 운용유형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 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한 방법에 따라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제시받은 사용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설정하여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① 없다 ② 1개 ③ 2개 ④ 3개

37. 다음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 ②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따른 가입기간은 해당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전후에 걸쳐 해당 사업에서 제공한 근로기간을 모두 합한 기간으로 하여야 한다.
- ③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수준은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매 사업연도 말 적립금이 기준책임준비금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고 사용자가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그 초과분을 사용자에게 반환할 수 있다.

38. 다음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퇴직급여제도의 설정에 갈음하여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다.
- ②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에 갈음하여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 사용자는 가입자별로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 ③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하기 위해서는 가입자의 연령이 55세 이상이어야 하고 연금의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한다.
- ④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도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를 위해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다.

39. 다음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운용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용자는 퇴직연금제도 적립금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하여 적립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 ② 적립금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사업에서 퇴직연금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 ③ 적립금운용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해야 한다.
- ④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용자는 적립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적립금운용계획서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하여야 한다.

40. 다음 사례 중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거나 가입할 자를 모집하는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례는 모두 몇 개인가?

(갑, 을, 병, 정, 무는 모두 적법한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자격을 보유하고 있음을 전제함)

- 가. A 퇴직연금사업자와 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 갑은 B 퇴직연금사업자와도 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모집업무를 수행하였다.
- 나. 을은 C에게 퇴직연금제도 모집업무를 다시 위탁하였다.
- 다. 병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려는 D에게 퇴직연금제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였다.
- 라. 정은 모집업무를 수행하면서 퇴직연금제도 설정예정인 E사업장의 사용자를 대리하여 퇴직연금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였다.
- 마. 무는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F로부터 적립금 운영방법에 대한 지시를 받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전달하였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